



올해도 '최강 광주 검도'를 위하여 지난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검도 사상 첫 전관왕 금지탑을 세운 광주 서석중·고등학교, 조선대 검도부 선수들이 15일 조선대 본관 앞 계단에서 동계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최경주 “나 이제 넘버 7”

세계 랭킹 지난주보다 2계단 올라

오는 3월 제주 유럽프로골프 출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소니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사진)가 세계랭킹 7위까지 올라섰다. 15일 발표된 세계 주간 골프랭킹에 따르면 최경주는 지난 주 9위에서 두 계단이나 순위를 끌어 올렸다. 세계 7위는 지난 8월 바클레이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랭킹 8위에 올라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 '톱10'에 진입했던 최경주는 이로써 '톱5'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최경주보다 랭킹이 앞선 선수는 1위 타이거 우즈(미국)를 비롯해 필 미켈슨, 스티브 스트리커, 짐 퓨릭(이상 미국), 에니 엘스(남아공),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뿐이다. 지난 주 7위였던 아담 스콧(호주)이 8위로 물러

앉았고 8위였던 파드리그 해리턴(아일랜드)은 9위로 떨어졌다. 비제이 싱(피지)이 10위에서 11위로 처지면서 소니오픈 준우승자인 로리 사바티니(남아공)이 10위에 올라 처음으로 세계 랭킹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최경주는 오는 3월13일부터 나올 제주 핑크스골프장에서 열리는 유럽프로골프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한국에서 사상 처음 열리는 유럽프로골프투어 대회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한국이 낳은 세계 정상급 골프 선수인 최경주를 초청했다. 연간 한두차례 국내 대회에 출전해 고국 팬들에게 세계 정상급 샷을 보여줬던 최경주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특급 대회로 꼽히는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션을 스के줄에서 빼고 국내 첫 유럽투어대회 출전을 결정했다. PGA 투어에서 '양광테리블'로 불리는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도 난생 처음 고국 무대를 밟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PGA 2주 연속 ‘코리언 파티’ 열겠다”

17일부터 볼호프 클래식 개막

한국 5명 출전...최경주는 불참

'안도 탱크' 최경주의 시즌 첫 우승에 이어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 2주 연속 '코리언 파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한국시간)부터 5일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휴양도시 팜스프링스의 클래식클럽, PGA 웨스트 파머코스, 라킨타골프장, 그리고 실버록골프장 등 4개 코스에서 열리는 PGA 투어 볼호프 클래식에서 최경주는 불참하지만 양용은(26·테일러메이드), 나상욱(24·코브라골프),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 그리고 박진(31) 등 '코리언' 다섯명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되는 것은 코스가 '안방'이나 다름없는데다 정상급 선수들이 대부분 불참하기 때문이다.

양용은은 대회장에서 지적인 팜스프링스에 집을 마련해 3년째 겨울을 이곳에서 지냈다. 미국에서 경기경험이 많지 않은 양용은이 그나마 가장 익숙한 곳이 바로 팜스프링스지역 골프장이다. 올해 새로 PGA 투어 멤버가 된 양용은은 지난해 실패를 거울 삼아 거칠고 공격적인 샷을 가다듬어 시즌 첫 대회인 소니오픈에서 공동 20위를 차지,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소니오픈에서 공동 4위라는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인 나상욱에게도 팜스프링스는 고향이나 다름없다.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간 나상욱은 주니어 시절부터 팜스프링스 지역 골프장을 섭렵해왔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팜스프링스에서 자동차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수시로 들러 실전 연습을 했던 곳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장한 위창수도 팜스프링스 지역은 눈 감고도 된다. 나상욱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골프장은 가보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PGA 투어에서 '양광테리블'로 불리는 앤서니 김은 라킨타고교를 졸업했다. 라킨타골프장, PGA웨스트 등 대회가 열리는 골프장은 앤서니 김에게 놀이터였다.

■ 여자 프로배구 양극화

프로배구 2007-2008 V-리그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여자부 연승과 연패 행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혼전 양산인 남자부와 달리 양극화가 뚜렷한 여자부는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에 만났던 1, 2위 팀 흥국생명파 현대건설의 명암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흥국생명
10연승
'잔칫집'



현대건설
11연패
'초상집'

흥국생명은 지난해 12월1일 개막전에서 KT&G에 달미를 잡힌 뒤 탄탄한 전력으로 거침없는 10연승 고공비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흥국생명은 15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7-2008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홈경기에서 김연경(16득점)과 마리 헬렌(14득점)의 활약으로 티파니 도드(17득점)와 이진희(13득점)가 활약한 현대건설을 세트스코어 3-0(25-18 25-21 25-21)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흥국생명은 파죽의 10연승으로 10승1패를 기록, KT&G와 승패가 같아졌고 점수실질에서 앞서면서 1위로 다시 올라섰다. 반면 현대건설은 화력 부족과 노련미 부족으로 기대하던 첫 승리를 거두는데 실패하면서 11연패의 늪에 빠졌다. 흥국생명은 김연경과 황연주, 마리 헬렌으로 이뤄진 삼각편대의 파괴력이 막강하고 지난 시즌 후 KT&G에서 옮겨온 베테랑 세트 이효희가 점점 팀에 적응하면서 최강 전력을 구축했다. 신인 리베로 전유리가 수비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라이트, 레프트, 센터로 모두 될 수 있는 새내기 이보라가 과감한 스파이크와 강서브로 든든한 백업요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흥국생명은 15일 경기 1세트 10-10에서 마리의 강타와 황연주의 2점 백어택

으로 균형을 잡고 15-14에서 김혜진이 이동공격을 성공하고 전진정이 서브득점 2개를 터뜨리는 등 연속 4점을 몰아쳐 가볍게 기선을 잡았다. 흥국생명은 3세트 초반 방심한 탓에 고전했지만 14-14에서 김연경의 화려한 2점 후위택을 신희찬으로 상대 범심을 틈타 연속 6득점했고 24-21에서 김혜진이 티파니의 공격을 가로막아 완승을 마무리했다. 반면 '전통의 명가' 현대건설은 개막전부터 11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승리에 목말라 있다. 현대건설은 실업시절인 2004년까지 겨울리그 5연패를 달성했고 프로에서도 2005-2006 시즌에 4경기 연속 진 것이 최다일 정도로 연패와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 GS칼텍스가 보유했던 13연패를 넘어 여자부 최다 연패 불명예를 안을 처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국제 자동차경주 F1 TV 시청자 5억9,700만명

국제 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 원(F1) 2007 시즌 TV 시청자 수가 전 세계 188개국에서 5억 9천7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뮬러 원 매니지먼트(FOM)사는 15일 '2007 F1 글로벌 브로드캐스팅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이

는 2006 시즌보다 약 1천만명이 늘어난 수치로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 은퇴 후 첫 시즌이라 F1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뒤집은 결과다. 국가별 방송시간을 보면 독일이 F1 관련 프로그램을 연간 780시간 편성해 가장 많은 양을 할애했는데 2007년 유럽축구연맹(UE-

F1 매니지먼트사 지난해 통계 독일 연간 780시간 방송 최다

FA) 챔피언십리그 연평균 시청자 수(약 250만명)보다 F1 시즌 평균 시청자 수(약 520만명)가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영국 ITV의 경우 평소 주말 채널 점유율이 17% 정도였지만 F1을 중계한 주말은 38%대로 크게 높아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골프 코스	시세/매매	골프 장	시세/매매
경주	3,450	순실비	1,700
남광주	4,400	광도	1,900
승주	8,200	포양	2,100

상담문의 (062)351-0095